

# 프로야구 오늘부터 '코로나 스타일' 연습경기



KIA 장영석(오른쪽)이 지난 18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홈백전에서 홈런을 친 뒤 유민상의 환영을 받으며 홈에 들어오고 있다. 이날 KIA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KBO의 '맨손 하이파이브 자제' 요청에 따라 허공 하이파이브, 팔인사 등을 선보였다.  
/김여울 기자 wool@

KIA, 삼성과 오늘 홈·23일 한화 원정  
25·27일엔 NC와 경기  
윌리엄스 감독 '색' 확인해 볼 기회  
10개 구단 20경기 TV 생중계

KBO, 오늘 이사회서 개막일 결정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발표  
선수들, 경기중 하이파이브 금지  
심판위원 등 스태프 마스크 의무화  
앱 활용해 일별 자가점검표 작성

KBO리그 2020시즌 개막을 위한 점검 무대가 시작된다. KBO 연습경기가 21일 막을 올린다. 팀당 4경기씩 총 20경기가 오는 27일까지 진행된다. KIA타이거즈는 삼성라이온즈와 21일 안방에서 첫 경기를 치르고, 23일 대전으로 가 한화 이글스를 상대한다. 25, 27일에는 NC 다이노스와 연달아 만난다. 25일은 원정 경기, 27일은 홈경기로 펼쳐진다. 또 KBO는 21일 이사회를 열고 정규시즌 개막 일정을 확정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달 5일까지 연장됐지만 정세균 국무총리가 "야외 스포츠도 무관중 경기와 같이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5월 1일 개막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지만 개막에는 중요한 단서가 있다. 바로 코로나19 완벽 차단이다. 이를 위해 KBO는 최근 업데이트된 코로나19 대응 통합 매뉴얼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1일 연습경기부터 선수들은 그라운드와 덕아웃을 제외한 모든 구역(라커룸 포함)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심판위원도 경기 중 마스크와 위생 장갑을 착용한다. 트레이너와 통역, 매니저 등 선수단 동행 프런트, 볼·배트보이(걸), 비디오판독 요원 등 관계자들도 마스크와 위생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 선수단과 관계자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일별 자가점검표를 작성한다. 또 선수들이 경기 중에 짐을 뺀 행위가 금지된다. 경기 중 선수들이 맨손으로 하이파이브를 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새로운 세리머니도 등장할 전망이다. 이 방침에 따라 지난 18일 KIA의 홈백전에서도 낮선 풍경이 연출됐다. 이날 홈런을 기록한 터커가 그라운드를 돌 때 김종국 주루 코치와 대기 타석에 있던 유민상이 손이 아닌 팔을 내밀었다. 터커가 타격시 장갑을 착용하지 않는 만큼 하이파이브 대신 팔인사를 한 것이다. 백투백 홈런을 터트린 장영석은 허공 하이파이브도 선보였다. 최형우는 "하이파이브가 격정이다. 하이파이브는 팀의 분위기를 업시키는 것인데 그런 것을 안 한다고 하면 이상할 것 같다"며 "다르게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지 방법

을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우리는 있지만 KBO 연습경기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자체 연습경기를 통해 1차 경쟁을 끝낸 각 팀은 전력 탐색전과 함께 엔트리 확정을 위한 전쟁을 이어가게 된다. 선수들의 긴장감이 커지면서 그라운드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KIA 팬들에게는 윌리엄스 감독의 '색'을 확인해 볼 기회다. 홈백전 초반 전력 점검에 주력했던 윌리엄스 감독은 이후 3루수와 2루수와 유격수 사이에 배치하는 파격적인 시프트와 작전 등을 구사하는 등 시즌 준비에 속도를 냈었다. '진짜 적'을 상대로 자신의 구상을 실험하고 선수들의 '진짜 실력'까지 확인할 수 있는 만큼 KIA 벤치에 많은 시선이 쏠릴 전망이다. 한편 이번 연습경기는 TV 생중계로 만날 수 있다. KIA의 21일 삼성전은 MBC SPORT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3일 한화전은 SBS SPORTS와 KBSN SPORTS가 동시에 중계한다. 25·27일 NC전은 SPOTV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장정석 전 키움 감독, 야구해설위원 변신

2019년 키움의 한국시리즈 준우승을 이끈 장정석(사진) 전 감독이 야구해설위원으로 그라운드에 복귀한다. KBS N 스포츠가 20일 "2020 KBO리그 개막을 앞두고 장정석 전 키움 감독을 해설위원으로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장정석 전 감독은 2016년 말 키움의 전신인 넥센의 제4대 사령탑으로 취임, 이후 세 시즌 동안 두 번의 포스트시즌을 지휘

했고 지난해에는 한국시리즈 진출을 이끌었다. KBS N 스포츠는 장정석 전 감독과 함께 봉준근, 장성호, 안치용 해설위원으로 올 시즌을 꾸려가게 됐다.  
/김여울 기자 wool@



## 프로농구 '허훈 시대'

정규리그 MVP 선정...허재 이어父子 농구 대통령

프로농구 부산 kt의 허훈(25·180cm·사진)이 2019-2020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KBL은 20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정규리그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허훈은 원주 DB 김종규(29·207cm)를 제치고 생애 첫 정규리그 MVP 영예를 안았다. 허재 전 국가대표 감독의 차남인 허훈은 이번 시즌 정규리그에서 평균 14.9점을 넣고 7.2어시스트를 기록했다. 어시스트 1위와 국내 선수 득점 부문에서 송교창(KCC·15점)에 이어 2위에 오른 허훈은 올스타 팬 투표에서도 1위를 차지하는 등 기량과 인기 면에서 최고의 선수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DB를 상대로 3점슛 9개를 연속으로 성공해 KBL 타이거북(조성원 명지대 감독)을 세웠고, 올해 2월에는 안양 KGC인삼공사를 상대로 24점, 21어시스트로 KBL 최초로 한 경기 20득점, 20어시스트 이상을 기록했다. 허재 전 감독, DB에서 뛰는 허훈(27·185cm)과 '농구 가족'의 막내인 허훈은 프로 정규리그 MVP는 아버지나 형보다 먼

져 받게 됐다. 허재 전 감독은 1997-1998시즌 플레이오프 MVP를 수상했으나 정규리그 MVP와는 인연을 맺지 못했다. 다만 프로 출범 이전인 농구대잔치 시절 1991-1992시즌과 1994-1995시즌에 대회 MVP에 선정된 바 있다. 허재 전 감독의 농구대잔치 마지막 MVP 시즌 이후 25년 만에 허훈이 정규리그 MVP를 받은 셈이다. 아직 정규리그나 플레이오프 MVP 수상 경력이 없는 허훈은 이번 시즌 인기상을 받았다. 허훈은 또 이번 시즌 가장 멋진 플레이를 펼친 선수에게 주는 '플레이 오브 더 시즌' 수상자로도 결정돼 경사가 겹쳤다. 신인상은 허훈과 이름이 같은 DB의 김훈(24·193cm)에게 돌아갔다. 지난해 11월 신인 드래프트 전체 15순위(2라운드 5번)로 DB에 뽑힌 김훈은 23경기에서 2.7점을 넣고 1.4리바운드를 기록했다. 외국선수 MVP는 서울 SK 자밀 워니가 수상했고, 감독상은 DB를 정규리그 공동 1위로 이끈 이상범 감독이 2017-2018시



시즌 이후 2년 만에 다시 받았다. 베스트 5에는 허훈, 김종규, 워니 외에 송교창과 캐디 라렌(LG)이 선정됐다.  
/연합뉴스

## '훈련병' 손흥민

제주도 해병 제9여단 입소...내달 8일까지 기초군사훈련

한국 축구대표팀의 '캡틴'이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톱 클래스 공격수인 손흥민(28·토트넘 홋스퍼)이 당분간 '훈련병'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다. 손흥민은 20일 제주도 모슬포에 위치한 해병 제9여단 훈련소에 입소해 내달 8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되는 기초군사훈련을 시작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비공개 입소'를 선택한 손흥민은 이날 오후 1시 45분께 곧바로 훈련소로 들어갔다. 훈련소 앞에는 열성 팬과 인근에 사는 주민 80여명이 몰려들어 높은 인기를 실감케 했다. 취재진 20여명도 손흥민의 입소 장면을 포착하려고 멀찌감치에서 기다렸다.

손흥민은 앞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자 비공개로 입소를 진행하겠다고 SNS 등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손흥민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때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의 와일드카드(나이 제한 없이 참가하는 선수)로 출전해 금메달을 따고 병역 특례혜택을 받았다.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손흥민은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34개월 동안 현역 선수로 활동하면서 일정 기간 봉사활동(544시간)을 이수하면 병역 의무를 마치게 된다. 한편, 코로나19에 중단된 프리미어리그는 언제 재개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손흥민으로서는 기초군사훈련을 해결할 적기다.  
/연합뉴스